

지역통화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연구

김 동 배*
김 형 용*

I. 서론

지역통화(community currency)운동은 현재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각 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0여 지역 이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이다. 저마다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통화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 재구성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자립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회복은 지역통화운동의 가장 큰 기능이자 도입 목적으로 꼽히고 있다(Thorne, 1996; Williams, 1997; Pacione, 1997; Cahn, 1997; Ingleby, 1998). 구체적으로 지역통화는 일정 지역사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 주민들 서로가 소유한 자원들을 교환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현금 없이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지역통화는 명목상 화폐이면서도 실제로는 항상 풍부하게 넘쳐나며 누구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시키려는 매개일 뿐이다. 따라서 지역통화제도는 이 제도에 속한 이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이 운동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즉 이 운동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은 증대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고용 및 사회해체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지역공동체라는 전근대적, 어쩌면 탈근대적¹⁾ 모형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흐름과 병행되어 시도되었다. 다시 말해 국내 지역통화운동들 또한 지역사회의 미충족 욕구들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해 자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1999년 말 현재 국내의 지역통화운동 사례는 대략 20개 내외로, 이를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하자면 지역사회복지관과 구청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와 지역통화운동의 이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나 사이버 동호회 성격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예들들어 교육통화)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전자에 속한 사례들로서 이들 운영주체는 자신들이 기반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상부상조의 사회건설을 향한 '공동체적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에 속한 지역통화운동 사례들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주민들의 집합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통화운동 참여경험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환거래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그들간의 공동체의를 강화시키는지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통화운동 참여자들의 변화된 공동체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통화운동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사회복지실천방법론 중 지역사회조직의 거시적 실천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운동과 지역사회 자조운동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연구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사회기본구조의 강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지역사회개발의 급진적 접근(radical approach)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1) 여기서 '탈근대적'이라 함은 현대의 총체적 '위험사회'가 근대적 산업사회의 과학모델로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추구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 위치한다. 지역공동체는 국민국가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시점에서 상실되었던 자치권과 자율을 되찾으려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 패러다임에 적합한 전략적 차원으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이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제도에 의해 지배를 받던 상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게 하는 혁신적인 전환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중요성은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연대의 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성 있는 '안전사회'의 가능성을 내놓는다는 데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육성한다는 데에 있다.

II. 지역통화운동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역공동체 경제

Sayfang(1997)은 지역통화에 대한 그간의 광범위한 실증적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지역통화가 강건한 지역경제발전, 환경의 질적 향상, 책임성과 평등 및 상호자립과 같은 사회적 윤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그는 지역통화가 비공식부문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과 공식경제로부터 소외된 이들과 자원들을 다시 사용 가능케 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지역통화는 선물(gift)경제, 자원봉사, 박애와 같은 전통적인 비공식경제를 공식화하는 시도로 볼 수 있고 그 목적은 이러한 비공식경제의 정신을 공식영역에 확장시켜서 '공동체주의 경제'를 재창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외국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통화운동의 유형과 내용, 그리고 위와 같이 인식되는 인식의 배경 및 제 기능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지역통화운동에 관한 기초적 이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보편화된 20세기 초에도 시장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국가화폐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대안화폐로써 지역통화가 등장하였던 적은 자주 있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전의 지역통화제도들은 국가통화시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또는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그 역할도 감소하여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지역통화제도인 레츠, 타임달러, 아워즈는 국가로부터도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보완적 의미의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는 이들 지역통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화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레츠, 타임달러, 아워즈는 어떠한 지역통화인가?

1) 레츠

먼저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의 Courtenay를 시작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1998년 현재 350개가 운영 중인 영국을 비롯하여, 약 500개 이상의 유럽 및 호주지역, 한국의 지역통화 등이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 레츠는 '현금의 사용 없이도 사람들간에 상품과 서비스들의 모든 종류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서비스 및 물품 교환거래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회원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거나 구입 희망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시킨 후 레츠 화폐를 사용하여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레츠는 실제로 주고 받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²⁾. 다만 개인회원들의 계좌에 기록되는 화폐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레츠의 특성은 일면 자원봉사나 이웃간의 상부상조 또는 베희시장과도 엇비슷하지만, 상호적으로 호혜성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다르며, 호혜성이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웃간의 상부상조와도 다르고, 또 이자도 없고 레츠에 속한 누구에게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다자간 교환제도라는 점에서 개인간의 채무변제와도 다르다.(Pacione, 1997). 이러한 방식으로 레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종류의 구성 분포를 보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영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가사서비스(37.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재화(14.22%), 고용 부문 (13.21%), 교습(10.18%), 기업체서비스(7.12%)등이 일정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Williams, 1996, Seyfang & Williams, 1997).

2) 아워즈

반면 아워즈(HOURS)는 레츠와 기본적인 개념은 같으면서도 실제로 화폐를 발행하여 거래에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되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접근도를 높인 예이다. 즉 레츠가 회원들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아워즈는 한 시간 노동을 기초한 1아워즈(10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2아워즈, 1/2아워즈, 1/4아워즈라는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폐화폐는 소규모거래에 보다 사용가능하다고 인식되는데, 이는 지역의 상점들이 수십개의 조그마한 레츠거래를 매일 보고해야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워즈의 탄생은 레츠의 신용거래보다 더 빠르게 순환하고 더 많은 주민들을 즉시 가입시킬 수 있다는 고려에서였다. 또한 레츠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원하거나 제공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와 회원의 리스트가 단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어 비회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협소한 인원구성을 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아워즈는 전체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2) 이는 레츠 등록소(운영회)에서 계좌기록만으로 관리되는데, 즉 각 구성원은 개인 계좌 및 수표책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시 합의된 액수를 수표에 써 등록소에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통하여 그들의 거래가 각 회원의 계좌에 기록될 뿐이다. 각 회원이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면 차변(마이너스 : deficit)이, 제공하면 신용(플러스 : credit)이 되며, 이러한 거래 내역은 매일 회보를 통해서 공개된다. 차변과 신용의 균형은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모든 회원들은 다른 회원 계좌의 신용정도와 거래량을 알 권리가 주어진다.

손에 의해 아워즈 정보지가 배포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에 개방적으로 열려있다³⁾. 따라서 미국 뉴욕주 Ithaca시의 아워즈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를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어 아워즈와 달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점차 이타카 아워즈만으로도 상점에서의 상품 구입, 집세 지불,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⁴⁾.

3) 타임달러

위의 두 제도가 지역경제 및 화폐에 중심을 통화제도의 모습을 띄고 있다면, 타임달러는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에 가까운 제도이다. 다시 말해 타임달러는 초기에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여기에서 시간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사람의 노동시간을 일컫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다. 이 제도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요구자를 서로 등록을 시킨 후, 각자에게 맞는 봉사 내용을 타임달러 연구소라는 일종의 거래관리소가 직접 연결시켜준다. 이 점까지는 자원봉사센터와 동일하지만, 타임달러 제도에서는 자원봉사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1시간당 1타임달러를 봉사자에게 지불하고, 자원봉사자의 계좌에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임달러를 저축한 개인은 본인의 용도로, 또는 본인이 적극 추천하고 싶은 곳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타임달러는 레츠와 달리 물품의 교환거래는 없으며, 레츠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상호호혜성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제도에 가깝다. 산타크루즈 타임달러는 서비스 교환 네트워크(service barter network), 서비스 교환 프로그램(service exchange program)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Douthwaite(1996)는 타임달러와 레츠를 비교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레츠와 같이 물품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타임달러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3) 최초의 아워즈 시스템은 1991년에 뉴욕주에서 창설된 'Ithaca money'이다. 여기서 아워즈 시스템은 계좌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용되는 지폐를 발행하였는데, 그 동기는 창시자 Pole Grover가 이미 이타카 지역에서 레츠를 운영한 경험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전의 이타카 레츠의 경우 10달동안 약 6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나 운영기관인 지역사회 자립센터가 문을 닫은 1988년에 레츠도 같이 중단되었다. Pole Grover는 이 경험으로부터 보다 단순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관리운영상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계좌 기록의 필요 없이 즉시 개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화폐를 고안한 것이었다(Douthwaite, 1992).

4) 1995년 기준으로 인구 3만명의 이타카 시에 회원가입 수는 1,500명에 이르며, 이중 상점을 포함한 사업체는 무려 250개에 달한다(Douthwaite, 199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통화제도의 주된 도입 요인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미충족 욕구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술과 시간이 존재하며 그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통화의 부족 때문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국가통화 없이도 상호거래 및 교환을 촉진시킬 방안으로서 지역통화를 고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지역통화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Throne(1996)은 그의 연구 결과 영국의 경우 경기침체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사회주민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건설, 소유관계와 사회관계에 대한 재인식이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레츠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이익도 사회적 인 동기의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며 재화와 서비스 교환은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배태된 것으로 단순히 경기침체에 대한 반사적 반응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요인, 즉 인간중심적 사회로의 변화와 공동체적 사회를 향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레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91년 아워즈 창시자 Pole Grover는 아워즈가 '지역의 부를 다시 순환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적으로 투자하게끔' 바라는 경제적 이유를 강조한 반면(Brandt, 1995), 또한 이를 통해 '거래관계가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공정한 것이 되길 희망한다'(Fortier, 1996)라고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사고가 제도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지역통화제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통화

지역통화는 '최소성'에 기반한 일반 화폐와 반대되는 개념인 '풍부함'에 기반한 화폐이다. Williams(1996)에 따르면 대량실업 시대라 하더라도 노동을 필요로 하는 욕구는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욱 더 많이 존재하며, 제공 가능한 노동력도 존재하면서도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국가통화의 부족 때문이므로 지역통화는 이 최소성 원칙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풍부함의 원칙을 제공한다. 구매행위를 원하는 사람들만큼 많은 구매력이 있으므로, 지역통화제도에 올려지는 상품이 있는 한 지역화폐는 언제나 가치가 있다. Greco(1994)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서 국가통화가 독점적으로 발행되고 정치적으로 그 분배

를 다룸으로써 일반 사람들에게는 희소하고 극소수의 이들에게만 넘쳐나는 양극화의 도구로 된 것과는 달리, 지역통화는 보다 완전하게 인간의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해방적인 도구가 됨으로써 모든 이들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통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관하여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적 지역사회 건설

지역통화는 자립경제 시장을 창출한다. 지역통화는 자기조절적 경제 네트워크로서 지역 스스로의 화폐를 제한된 지역 내에서 유통시키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각자는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고 또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다시 지역 내로 화폐를 재흡수하는 기능을 갖는다. Pacione(1997)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통화제도는 자족(Self sufficiency)이 아니라, 자립(self reliance)인 것이다. 그는 지역통화운동이 그 동안 우세 하였던 국가 및 세계시장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지역시장의 창출', 즉 지역의 자립경제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통화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막는 공황을 유발할 수 없으며 세계 경제의 위계구조에 의하여 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저지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지역의 고용 및 자원이 외부에 의해서 취약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내 화폐순환을 빠르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즉 지역통화는 지역 내 모든 자원들의 교환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로 되는 일자리를 만듦으로서 지역사회 경제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만 귀속되게 한다(Visser, 1996). 특히 지역통화가 도입되면 실업자나 노인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 비록 자신이 공식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자신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시간제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화는 누구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신용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지위를 향상시키게 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Williams(1996)는 지역통화가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노동시장 내에 편입시킴으로서 실업자 구제방안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Pacione(1997)는 지역통화가 실업과 불완전고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⁵⁾. 결국 지역통화는 지역사회 취약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품목들과 소득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 때문에 제 3섹터의 사회안전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 생태주의 사회로의 진보

지역통화는 궁극적으로 사회적·환경적 생산비용의 완전한 내부화(*Internalisation*)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주의 경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지역통화는 생산의 외부화(*externalisation*)된 비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환경의 파괴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Seyfang, 1994).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생산을 최대효율에 맞추어 국가간의 경쟁적 이익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함을 강조한 반면, 생태주의 시각을 유지하는 신경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효율성이 그것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결속의 파괴 또는 공해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비용들을 계산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지역중심의 경제활동은 지역육구에 따라 지역생산을 증감시킬 수 있으며, 단지 현금소득을 벌기 위하여 지역환경의 질을 조정할 필요가 없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수송을 통하여 발생하는 교통공해를 감소시키고, 산업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원의 대량소비와 공해 유발적인 산업체제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노동력 사용으로 서비스 인건비가 낮아져 손쉽게 도움을 받아 자원을 고쳐 사용하게 되고, 재활용되고, 폐기물이 줄어들며, 녹색 소비양식이 장려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태주의 경제는 빈곤과 자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Dobson(1993)은 녹색정치사상의 지속가능한 사회는 차별성을 축소하고 사회주의적 평등 개념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지역통화제도 내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강조되는데, Linton(1993)은 지역통화 공동체 내의 신뢰관계가 그 고유한 체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한 생태적·사회적 평등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Seyfang(1994)은 지역통화가 그 자체로 반자본주의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계급과 착취를 이슈로 만들어 내며 강압이 아니라 동의의 통해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지역통화운동의 옹호자들은 지역통화가 지역경제에 자립을 촉진하고, 경제적 의존성에 대하여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5) 일례로 지역통화는 지역사회 취약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Time Dollar의 경우 타임달러 취업사무소(Time Dollar Community Employment Agency)를 통해 실업자들의 근로 활동 참여, 직업 소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통화를 이용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자원들의 공동체적 소유의식을 이끌어내어, 생태사회주의와 아나키스트적 생태주의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3) 지역사회 상호원조 기능의 확대

지역통화는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상호원조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통화 제도에서의 교환거래는 주민들에게 상호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Cahn, 1997). 따라서 외국의 경우 지역통화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어, 지역사회내의 상호부조 기능을 증진시켜 주고 있다. 이에 영국 Manchester 레츠에서는 실업자의 73.3%가 도움을 청할 보다 넓은 사람들의 연결망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Williams, 1996). 또한 일정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지역의 한계계층을 위해서 적립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지역통화에 가입한 기업에게 지역사회 기부금을 내도록 권장되어, 이를 지역사회기금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 Birmingham 지역의 레츠시스템은 Social Fund라는 명목으로, 질병이나 위기 때문에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레츠 품목을 제공하기도 한다).

4)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역통화운동은 거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역량강화(empowerment)시킨다는 점이 강조된다. Ingleby(1998)는 레츠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모두를 역량강화시키는 도구라고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체주의적(totalitarian) 공동체운동들이 인간의 개별 욕구를 사상한 채 협동적 지역개발과 교환거래에서의 원칙만을 공동체의 기초 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경제적 이슈에 종속시키고 개인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뜨렸던 것과는 달리, 지역통화는 주민들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그들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보다

6) 지역통화운동은 중앙집권형의 통제기구를 배제하고 공동체 성원의 자율적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외를 주민들의 공동체 이념으로 흡수하면서 불공평하고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사회 내 구조들을 변혁시키는 목적을 갖는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면에서 신사회운동과도 접목되고 있다(Ingleby, 1998).

7) 버밍햄 레츠는 Social Fund 명목으로 계좌를 만든 다음, 회원들이 지역사회 취약구성원들에게 봉사하면 이 계좌로부터 봉사한 회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불하게 하였다. 반면 Social Fund 계좌는 각자 자율적으로 이 계좌에 지역화폐를 기부하게 함으로써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되어있다.

근본적인 지역사회개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즉 지역통화는 지역주민들 삶의 자립 및 참여 조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동안의 현금경제가 부여하였던 자신에 대한 무용성 그리고 사회와 자신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들을 극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Brandt 1995; Seron, 1995; Visser, 1996). 또한 지역통화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함 없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에 기여하고, 개인수준에서 사장될 수 있는 기술이 직업이라는 태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문적인 능력도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randt, 1995).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의 경우, 지역통화를 통해 자신에게는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부족한 것은 오직 공식적인 현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쓸모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자신감을 획득하기도 한다(이가옥·고철기, 1998).

Ⅲ.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발달

국내의 지역통화운동은 1998년 3월 민간단체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1999년 초반기부터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어져서 '품앗이', '기술도구은행' 또는 '교육통화' 등의 형태로 대략 20개 내외로 확산되었는데, 이들 지역통화는 대다수 레츠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성격은 저마다 차이가 있어 운영단체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각각 공동체문화, 사회복지 기능성, 또는 문화·교육 자원의 교환망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회원수는 외국의 레츠 사례들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199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99년 11월 현재 미내사(fm(futuer money)시스템이 447명, 송파품앗이가 101명, 서초품앗이가 283명,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이 342명으로서 이는 영국 평균 85.6명(1995년 기준)과, 호주 평균 145명(1996년 기준)보다도 훨씬 많다. 그러나 많은 회원 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례들의 교환거래 규모는 매우 저조한 편인데, 이는 대다수 교환거래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환거래를 시작한지 4달 밖에 되지 않은 송파품앗이의 사례를 보면 교환거래를 시작한 8월에 2건, 9월에 7건, 10월에 17건, 11월에 20건으로 계속 두배 수 가량 증가하고 있어 99년 11월 현재 101명의 회원 중 23명의 회원들이 총 거래

2,102,000 sm⁸⁾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거래규모로 환산하면 91,391원 가치가 된다. 더욱이 100,000 sm이상 교환거래자는 4명으로 이들은 지난 세 달간 평균 294,500 원 가치의 교환거래를 하였다⁹⁾.

<표 1> 송파품앗이의 거래 규모

단위 : sm (원과 동일가치)
기간 : 99.8 - 99.11

구분	1만원 미만	1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계
거래규모	8,000	188,000	728,000	1,178,000	2,102,000
거래 회원 수	1	8	10	4	23명
1인당 평균 거래규모	8,000	23,500	72,800	294,500	91,391

자료 : 송파품앗이 내부자료, 1999

한편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통화 4단체-미내사 fm, 송파품앗이, 서초품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참여회원 9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의 설문조사(응답자 195명)를 보면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이 해당 제도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주로 개인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념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통화운동이 추구하는 이념과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57.2%)'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주된 참여자 동기로 나타난 '경제적 이유', '이웃 형성' 동기와 대비되고 있다.

<표 3> 참여자들의 가입동기

단위 : %

구분	이념 및 취지	남을 도울 있어서	경제적 이유	이웃 사귄	기타
전체	57.2	16.1	11.7	4.4	10.6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지역교환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방안 연구」 1999

참여자들 대다수(83.7%)는 실제로 디렉토리에 자신들의 서비스 및 물품을 등록시켜놓고 있는데, 자신이 제공받고 싶은 내용을 등록한 이들(32.6%)보다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등록

8) sm(songpa money) : 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송파품앗이 지역화폐명.

9) 국내 지역통화 단체들의 화폐 명은 각기 다르지만 그 가치는 모두 원과 동일하게 두고 있다. 즉, 1만원 상당의 서비스나 물품은 각기 1만 fm, 1만 sm으로 기록된다.

한편 각 단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래규모는 각 회원들의 거래 기록을 모두 합한 것이다. 예를들어 1만원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 거래규모는 제공자와 구입자 각 1만원씩 2만원으로 합산된다. 따라서 회원들의 거래규모는 매 교환거래시 적립되는 플러스 및 마이너스 액수를 합친 규모이므로, 실제 거래된 전체 규모는 1/2이다.

한 이들(55.8%)이 더 많아, 이 거래에 참여가 우선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싶은 품목으로는 교육관련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단순노동서비스, 가사서비스, 전문서비스, 주택수리서비스 등이다. 반면 식품 및 의복, 생활용품은 매우 낮게 나타나서, 국내 지역교환거래망은 서비스 교환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국과 호주 등 외국의 지역통화 시스템에서 생활용품과 가사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표 2>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

구입희망 구성비(%)	품목	제공가능 구성비(%)
29.0	교육 및 교습서비스	27.7
11.3	단순노동서비스	8.4
10.5	가사서비스	15.7
8.9	주택수리서비스	10.8
8.9	전문서비스	9.6
5.6	의료서비스	4.8
4.8	의복	1.2
3.2	생활용품	6.0
2.4	식품	7.2
15.3	기타	8.4
100.0	계	100.0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지역교환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방안 연구」, 1999

한편 지역통화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 및 '개인 및 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많이 선택하였고, 환경친화적 제도와 대안경제로서의 기능은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4> 지역통화제도의 장점에 대한 인식

응답 내용	구성비(%)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함양	33.3
개인적인 경제적 혜택	19.6
지역경제의 활성화	17.5
실업자 및 한계계층의 자조시스템	12.6
환경친화적인 경제시스템	9.6
지역경제 예측의 극복 대안	5.6
기타	1.8
계	100.0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지역교환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방안 연구」, 1999

IV. 국내 지역통화운동 참여자의 공동체의식

1.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화제도 참여 이후의 참여자의 공동체의식 강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 2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¹⁰⁾. 심층면접은 각 참여자가 공동체의식 강화에 관련한 표준화된 질문지를 작성케한 후, 그 내용에 바탕한 구체적인 면접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현재 지역통화 거래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수와 거래 경험 횟수가 양적인 연구방법이 가능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지역통화운동과 같은 적은 수의 실제 경험 사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일반적 원칙들을 찾고 현상의 총체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내용의 참고자료로서 응답자의 공동체의식 강화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식의 4가지 차원인 1) 구성원의식 2) 영향의식 3) 욕구의 통합과 충족 4) 정서적 연계를 나타내는 총 14개의 항목을 지역통화운동 경험 이후의 변화 인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각 항목은 McMillan &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개념화와 관련되어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¹¹⁾. 이 양적인 공동체의식 점수는 통계적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간의 경향과 중점정도를 파악하여 응답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심층면접은 이 응답지를 기초자료로 삼고서 위 4가지 차원에서 응답자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구문제에 접근하도록 개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은 McMillan &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4가지 차원 각각에 대하여, 심층면접내용 기록지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내용을 Miles & Huberman(1994)의 사례순서 매트릭스(case ordered matrix)를 이용하여 재기록하였는데, 내용분석은 이 사례순서 매트릭스를 근거로 하여, ① 가장 많이 중복된 내용 ② 응답자가 강조한 내용 ③ 공동체의식 강

10) 공동체의식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4개 사례-미내사fm, 송파팝앗이, 서초팝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 - 20명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11) Glynn(1981); Chavis,Hogge,McMillan,Wandersman(1986); Davison & Cotter(1986); Nasar & Julian(1995); Lambert & Hopkins(1995); Lounsbury & Deneui(1996);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1996); Sagy, Stern, Krakover(1996); 김경준(1998); Prezza & Costantiti(1998); Royal & Rossi(1999).

화 관련 측정 점수에 따른 응답자들의 유형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 지역통화운동 참여경험과 공동체의식의 강화

면접결과, 20명의 면접대상자들은 단지 2명을 제외한 18명 모두 공동체의식 강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식 강화 관련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의 적극적 긍정을 표한 사례는 10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원의식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거래를 함으로써 '지역'을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영향의식과 관련해서는 참여자들이 그들 집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고 이 규범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들이 표현되었으며, 욕구의 통합 및 충족과 관련해서 자아실현의 기회와 정서적인 만족감이 지역사회로부터 충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정서적 연계와 관련해서는 교환거래를 통해 알게된 지역주민 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 대한 친밀감과 연대감이 매우 고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은 엄밀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표 1> 공동체의식 강화에 긍정적 태도를 지닌 면접 사례 18명의 내용

구분	내용
구성원의식	다들 비슷하게 행동할 것 같고, 새삼 ** 주민임을 느끼게 한다 **구는 역시 분위기가 다르다, 소속감을 느낀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 책임감이 커진다 **구에 자부심이 생긴다. 자긍심을 가질만 하지 않는가 함께 하고,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 소외감 같은 것을 찾지 않아도 된다 공동사회에 산다, 소극가도 가능하다는 느낌
영향의식	특유의 행동 제약이 생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지역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나아질 것 같다
욕구충족 및 통합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쉽고 편하게 일할 기회도 갖고, 돈도 벌고, 매우 혜택이 늘었다 하고 싶어도 나이 먹어 못한 것을 내가 돈벌어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움도 받고, 그 대가도 치를 수 있어 미안한 일이 없어졌다 무엇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정서적 연계	이웃에 느끼는 친밀감이 커졌다. 정이 느껴진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신뢰가 생긴다 신뢰가 싸이니까 관심도 늘어나고,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든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을 많이 알게된 뿌듯함 살면서 편안한 느낌, 친구와 같이 있다는 느낌

1) 구성원 의식 - 소속감과 책임의식의 강화

구성원의식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 구성원이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전감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부분을 투자하며, 공동체에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면접 결과, 20개의 면접사례 중 18개의 사례들이 이러한 내용에 긍정적인 내용을 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속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지역통화운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에 사람을 포함시켜놓음으로써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람들을 비로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경계의식을 통해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소속감의 확인이 지역사회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통화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단정체성이 '나눔'에 있다고 보는 이들로, 참여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과 의미에 공감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수반한 공동체 규범을 습득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면접대상자 중에는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는 현실성에 대한 의심으로써 다들 먹고살기도 바쁜데 생활이 풍족한 사람들 말고는 누가 남과 나누면서 살겠느냐라는 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성원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대다수의 이들은 그들에게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동력은 지역주민들과의 색다른 만남에 있을 뿐이며 지역통화는 새로운 규범과 생활양식을 제공해준 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지역통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구성원의식을 심어준다기 보다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인식의 계기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향의식 - 공동체적 규범의 확산

영향의식은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에 가하고 있는 규제력 또는 규범의 전파력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규율에 맞추어 행동양식을 정하는데, 감찰하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또한 명백하게 규율로서 정해지지 않아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습속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장려받게 된다.

대다수의 지역통화운동 참여자들은 우선 교환거래경험을 통해서 이웃사회가 자신의 삶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이러한 의식을 표상하는 단어로는 '부담'이다. 지역화폐로의 거래는 현금거래와는 다른 신뢰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신뢰관계가 부여하는 속성들이 매번 대면상황에서의 바탕이 되면서 규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만 받고 했었다면 돈이 목적이니까 수리해준 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거 뭐 돈 받고 한 것이 아니니까...걱정이 되요...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더욱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B지역통화, 남, 50대, 가전수리서비스 제공),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나고, 그래서 계속 확인 전화를 하고,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당부하고 그랬어요'(B지역통화, 남, 40대, 도배서비스 제공)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관계가 주는 구속감이다. 따라서 지역통화운동이라는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구속감은 지역주민의 행동 규범을 전파하고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뢰관계가 주는 구속감은 교환거래를 통해 만나고 있는 참여자들 뿐 아니라, 대면관계가 넓어지면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확대시키려는 쪽으로 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지역통화운동의 참여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공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위로부터의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즉 자신이 배운 새로운 윤리규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해 보임으로써 '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3) 욕구의 통합 및 충족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상

공동체의식 하위차원으로서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참여자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참여자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한 기회들을 지역사회 내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제공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물질적인 보상을 강조한 참여자들도 있었으며, 심리적인 보상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 또는 자신과 유사한 신념을 가진 다른 이들과의 만남의 기쁨 및 자아실현 등을 강조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물질적 보상에 대한 인식은 이전에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었거나 망설였던 것들을 현재는 지역화폐를 통하여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지역화폐를 실제 돈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참여자들은 지역통화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역통화제도가 부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던 사례 단체들의 목표에 비해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는 아직 물질적인 혜택은 거리가 멀었다. 다만 현금 경제체제에서는 잠재되고 유보되었던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잠재된 욕구를 개발하는 자아실현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보상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자아실현의 기회 획득은 노인과 주부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들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전업주부들이 사회활동 참여시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보호장치로서 지역통화운동을 인식하게 한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보상의 개념을 벗어나서 본다면 다양한 심리적 보상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지역통화제도에 올려진 품목들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서비스 품목들은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꾀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감은 회원들의 참여동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자존감의 고양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에도 상대방의 불충분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집단 의식이다. 이를 두고 '별 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고마워 할 줄은 몰랐다' 라던가, '남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즐겁다' 등의 반응은 참여자들이 자존감 욕구 충족시킴과 동시에, 집단에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4) 정서적 연계

지역통화운동의 참여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수확은 한결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교환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교감'을 나누고, 신뢰를 높이고,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표현하였다. 지역통화제도 참여자들은 '얼굴을 아는 거래'가 지역주민들을 연결시키고, 개인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환거래를 통해 주민들 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친밀감이 형성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 양식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즉, 지역통화운동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경계 안에서 주민들과 유대감, 친밀감, 같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한다.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비교해야만 하는 이전의 거래습관에서부터, 다양한 관심거리들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추천을 하며, 서로의 대가를 고맙게 주고받는 말들 때문이다. 즉 회소하지 않는 화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유로움이 의사소통을 지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교감이다. 이웃과의 '교감'을 강조한 다음의 말을 살펴보자.

‘다른 건 몰라도, 만난 사람들과 교감은 가능하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산 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까, 끝나고 술이나 같이 하자, 같이 C지역통화를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자리가 되더라구요. 저도 지역화폐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 거저로 일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그 사람들과 친해졌죠. 전 이러한 친밀감을 중요시 여깁니다...바로 그것이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친교도 나누고 싶은, 뭐 그런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이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흔하지 않아서, 매우 소중한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C지역통화, 남, 40대)

그리고 주민들 간에 관심을 표명하는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연대감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에 자신을 둘러싼 연계망이 이미 일정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참여자 집단은 모두 이러한 교환거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면서 개방적인 지역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에 관한 이야기, 지역 내의 문화행사 이야기, 지역사회 내의 문제점 등 의사소통을 통한 공공영역의 구축을 활발하게 만든다. 교환거래를 통한 만남은 지역사회 내의 개인들을 서로 그리고 지역과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들의 행위도 같은 경험 하에 유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를 표현하는 말들은, 지역주민들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는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말하는 사례들은 타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더 갖게 서비스 구입욕구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몇몇 이들은 주로 교환거래 경험이 없는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적인 접근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지역주민들 간에 ‘신뢰’를 쌓은 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친밀해지고 또한 연대성을 습득해 나가면서, 지역사회를 주민들의 공동운명체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V. 결론

지역통화운동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세계를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지역사회 참여에 소극적인 주민들에게 주민 스스로가 따르게 만들 규범을 구체적인 지역사회 관계 내에서 구축하는 계기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통화운동이 비

록 실용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혜택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자신의 연계망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과 주민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현실세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규범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통화운동은 지역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통화운동이 특정 계층의 모임이 아닌 모든 연령과 모든 직업군을 통합하여 그들의 자원과 함께 '사람'의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서 주민관계가 상호간의 자립을 돕는 구조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통화운동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상호 책임의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공공영역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주민의 자조능력 강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개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통화운동은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풍성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경제와 연관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공동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친숙함(familiarity)과 안정된 관계(stable relationship)를 획득하고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의 질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직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혜택의 정도가 지금과는 달리 의미 있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가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역통화운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의 가능성이며, 복지사회를 향한 지난한 과정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호강(1987),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이가옥·고철기(1998),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 고용·소득의 대안모색", 제4회 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지역교환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 방안"
Brandt, B.(1995), *Whole Life economy*, New Society Publishers, Gabriola Island
Cahn, E.(1997), *The Co-Production Imperative*, *Social Policy* Vol 62.

- Cahn, E. & J. Rowe(1996), *Time Dollars*, Family Resource Coalition of America
- Colin Bell & Howard Newby(1972), *Community Studies: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the Local Community*.
- Dauncey G.(1996), *After the Crash*, Green Print
- DeMeulenaere, S.(1998), "An Overview of Parallel, Local and Community Currencies in Asia, Africa", <http://ccdev.lets.net/overview.html>
- Dobson, A., 정용화 역(1993),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 Douthwaite(1996), *Short Circuit*, Green books
- Greco, Jr., T.H.(1998), "Improving Local Currencies, or How to Make a Good Thing Better", <http://azstarnet.com/~circ/implocur.html>
- _____(1994), "New Money for Healthy Communities", <http://www.ic.org/market/>
- Jean L. Hill,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1996,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4.
- Ingleby, J.(1998), "Local Economic Trading Systems: Potentials for New Communities of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2.
- Lambert, S. J. & Hopkins, K.(1995), "Occupational Condition and Worker'Sense of Community : Variation by Gender and Ra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2.
- Lang, P(1994), *Lets Work*, Montpelier: Grover Books
- Lee, R.(1996), "Moral money? LETS and social construction of local economic geographies in South East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8
- Lietaer, B.A., "Community Currencies : A New Tool for the 21st Century", <http://www.transaction.net/money/cc/cc01.html>
- _____(1996), "The Future of Money: Beyond Greed and Scarcity Toward a Sustainable Capitalism" (First Draft), <http://www.transaction.net/money/book/index.html>
- Lounsbury, J.W. and Deneui, D(1996)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 McMillan, D. W(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4.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Moers, P.(1998), "Community Currency Systems: A Co-operative Option for the Developing World", <http://ccdev.lets.net/moers.html>
- Pacione, M.(1997),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as a Response to the Globalisation of

- Capitalism", *Urban Studies*, Vol 34. No.8
- Pepper, D(1996), "Lets and Localism",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 Newyork; Rontledge
-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1996),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Adolescents of All Ag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4.
- Prezza, M & Costantiti, S(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8. P 181-194*
- Royal, M & Rossi, R.J(1999), "Predictors of Within-School Differences in Teacher'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92 no.5*
- Sagy, S., Stern, E., Krakover, S.(1996) "Macro- and Microlevel Factors Related to Sense of Community : The Case of Temporary Neighborhoods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5,*
- Seron, S.(1995),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http://www.gmlets.u-net.com/resources/sedonie/home.html>
- Seyfang, G.J.(1997), "Examining Local Currency Systems: A Social Audit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1.
- _____ & Williams(1997), "레츠, 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40호.
- _____ (1998), "KwinLETS : Working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http://dialspace.dial.pipex.com/g.seyfang/kwinLETS.html>
- Sonn, C.C. and Fisher, A.T.(1996)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a Politically Constructed Groop"
- Thorne, L.(1996),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 a case of re-embed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8*
- Visser, A. M.(1996), "The Case for Community Centred Economics", <http://sane.org.za/article2.html>
- _____ "Local Currencies and Trading Systems: Creative Solutions to Unemployment and Community disempowerment", <http://sane.org.za/article4.html>
- Williams, C.C.(1996),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 a new source of work and for the poor and unemployed?",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8.*
- _____ (1997),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LETS) in Australia: A New Tool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1.